

## 제1회 우수 리포트 공모대회 수상자에게서 듣다

글쓰기교실에서는 학생들의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해 매학기말에 공모를 통해 좋은 리포트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공모 마감일은 매년 1월 15일(2학기)과 7월 15일(1학기)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많은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글쓰기교실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자료집으로 발간된다. 리포트에 대한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예심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글쓰기교실 상담조교들이, 본심은 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과 글쓰기 교과목 전임대우 강사들이 담당한다. 심사의 기준은 글 속에서 얼마나 독자적인 사유가 드러나는가, 구성의 일관성이 있는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표현이 명료한가, 리포트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는가 등이다.

제1회 우수 리포트 공모대회는 2004학년도 2학기에 개최되었으며, 2005년 2월 4일의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이 선정되었다. 세 편 모두 상당한 수준의 수작이었고, 그 속에 드러난 진지한 문제의식과 학문적 자세, 뛰어난 표현력은 대학생들의 리포트가 으레 베끼기와 짜깁기 일색이라는 통념을 무색하게 했다. 우수 리포트로 선정된 글들이 대학생 리포트의 표준이 되고, 모든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적어도 이러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대학의 글쓰기 문화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 『가르침과 배움』은 글쓰기교실의 우수 리포트 공모대회가 좋은 글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수상자들에게서 글쓰기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는 소기회를 마련하였다.



2005년 3월 10일 제1회 우수 리포트 공모대회 시상식에서. 왼쪽부터 김태환 선임연구원(글쓰기교실), 이호빈(종교학과), 조지혜(교육학과), 전형준 소장(중어중문학과 교수), 명맑음(외교학과), 정병기 교수(글쓰기 교과목 전임대우강사).